

뉴스홈 | 최신기사

단기전 명수 이승엽, 반전드라마는 언제쯤

송고시간 | 2008-11-05 07:59



장현구 기자
기자 페이지



이승엽 1안타 요미우리, 6-4 승리.

이승엽 1안타 요미우리, 6-4 승리.

(사이타마=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요미우리 이승엽이 4일 세이부동에서 재팬시리즈 3차전을 6-4로 승리한 후 동료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승엽은 1안타를 기록했다.

xyz@yna.co.kr

(도쿄로자와<日사이타마현>=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큰 경기에서 언제나 극적인 드라마를 써왔던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언제쯤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까.

일본프로야구 최정상을 가리는 요미우리-세이부 라이온스의 일본시리즈에서 이승엽은 4일 3차전까지 뚜렷한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사이타마현 도쿄로자와 세이부 동에서 열린 3차전 두 번째 타석에서 이번 시리즈 첫 안타를 뽑아냈지만 성적은 8타수 1안타에 삼진 5개, 볼넷 3개로 신통치 않다.

GS SHOP

특급 혜택 받으세요!

5,000 10,000

4번 알렉스 라미레스가 2차전 굿바이 솔로포에 이어 3차전 솔로 아치로 두 경기 연속 대포를 작렬시켰고 3번 오가사와 라 미치히로도 3차전에서 솔로 아치로 6-4 승리에 뼈기를 박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탓에 5번 타자 이승엽의 입지가 좁아졌다.

흥한 대결로 진행 중인 이번 시리즈에서 나카지마 히로유키(2개), 나카무라 다케야(1개), 고토 다케토시(1개) 등 세이부 중심 타자들도 1개 이상 대포를 터뜨린 터라 이승엽의 처지는 더욱 웅색하다.

1-2차전에서 상대 투수의 피해 가기와 위협구로 타격 밸런스가 흔들렸다면 이승엽은 3차전에서는 상대 배터리와 수 싸움에서

1010회
모토 당첨결과 9 12 15 25 34 36 + 3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가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졌다. 변화구를 노리던 게 일찍 발각됐고 세이부 투수진은 직구로 허를 찔렀다.

이승엽은 타격 부진으로 시즌 초반 2군에 내려가 세이부와 인터리그 4경기를 치르지 못했고 볼 배합을 실전에서 경험하지 못한 탓에 고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시리즈에서 맞붙은 양팀 타자 중 이승엽만큼 단기전을 많이 치르고 성적이 좋았던 타자는 없다. 일본프로야구가 클라이맥스 시리즈를 양대 리그에 도입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에 일본에서 단기전이란 결국 일본시리즈를 일컫는다.

실제 일본야구기구(NPB)가 펴낸 일본시리즈 안내 책자를 보면 2005년 롯데 마린스를 일본 최정상급으로 이끌었던 이승엽은 당시 타율 0.545(11타수6안타), 홈런 3개, 6타점으로 빼어난 성적을 남겼다.

이승엽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에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 연속 포스트시즌을 치렀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시드니·베이징올림픽 등 단기전이라면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다.

2001년 야쿠르트에서 일본시리즈를 경험한 라미레스는 당시 타율 0.167(18타수3안타), 홈런 1개에 머물렀고 오가사와라도 2006년 니혼햄 시절 타율 0.200(15타수3안타)을 때린 게 전부다.

양팀 다 일본시리즈를 처음 밟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세이부에서는 1991년 히로시마와 2000, 2002년 요미우리에서 큰 경기를 치른 노장 에토 아키라(38)가 타율 0.276(29타수8안타), 홈런 2개를 때린 것 정도가 최고다.

베이징올림픽 4강전과 결승전에서 잇달아 터져 나온 결승 투런포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승엽이 단기전에서 보여준 극적인 반전은 어느덧 그를 상징하는 트레이드마크로 굳어졌다.

"내가 잘 때려 팀이 이기는 것만 남았다"고 주먹을 불끈 쥔 이승엽이 4·5차전에서 결정적인 한 방으로 팀을 6년 만에 정상으로 이끌지 주목된다. 이제는 이승엽이 저력을 발휘할 차례로 그가 홈런포를 쏘아올리면 요미우리의 우승은 더욱 가까워진다.

cany9900@yna.co.kr

🔗 관련기사

이승엽 "위험구 이겨낼 것..홈런 노리겠다"
<홈런에 울고 웃는 일본시리즈>
이승엽 "변화구 기다리는데 작구만...안 맞는 증거"
SK 전력분석팀 "이승엽, 부담감 떨쳐야"
이승엽, 첫 안타..요미우리 2연승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1/05 07:59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We Do Technology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안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 01:18

[영상] 입 발 뒀던 두 눈만 열었다...누가 확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졌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찰에 고발

138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대병원 자원봉사

60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9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
동재개 예열?

50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38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관사제휴문의